

지옥의 화가-히에로니무스 보쉬

‘무의식의 탐험가’

술단지, 뒤통이를 쓴 새가 영명에서 불타고 있는 인간을 먹은 후 수세식 변기와 같은 기구에 앉아 배설하고 있다. 그 옆에는 악기 형태에 형틀에서 고문을 당하는 인간들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다. 왼쪽 하단에는 도박에 중독된 인간들이 갖가지 형벌의 모습들을 적나라 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 제일 하단 우측을 보면 상상하기조차 낯뜨거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한 남자가 앉아있고 돼지 한 마리가 그를 껴안으며 그의 귀를 애무하려 하자 거부의 몸짓을 보인다. 그 돼지의 머리에는 수녀의 머리 가운이 걸쳐있다. 남자의 왼쪽에는 철갑모자 안에 악마의 모습을 한 인체의 다리만 보이고 투구끝에는 잘려진 발이 매달려 있다. 이러한 지옥에 대한 엽기적인 표현은 당시 사람들의 경악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 무시무시한 악몽을 꾸는 것 같은 생생한 지옥의 묘사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으로 인한 죄의식 속에 가장 깊은 두려움을 나타내기에 결코 모자라지 않는다.

히에로니무스 보쉬의 대표작인 이 제단화는 3개의 패널로 이어져 있는 <괘락의 정원>이다. 그 중에 세 번째 패널의 지옥도는 그로 테스크함을 넘어 혐오감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번에 소개되는 작가는 정말로 위대한 르네상스시대에서도 독보적 존재이다. 미리 얘기하자면 그의 작품은 현대미술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그의 작품을 보노라면 현대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를 떠오르게 한다. 아니 달리가 그의 작품을 그대로 모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막스 에른스트 등 현대 초현실주의 작가뿐만 아니라 문학과 영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죄지는 자들이 영원한 고통을 받는 지옥이라는 초현실적 세계를 무의식의 흐름을 따라 자유롭게 그린 듯한 그의 작품에는 주인공이 따로 없고 또한 작은 크기의 혐오스러운 군상만 난무한다. 그리스 신화에 나온 괴물들에 대한 문학적 표현을 그대로 실사판으로 만들었다. 도판이 작아 그의 작품을 세밀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아쉽다. (구글링을 하여 전체 원본 도판을 참조하기 바람)

히에로니무스 보쉬(1490?~1516)는 르네상스 시대 네덜란드의 화가로, 출생연도조차 잘 모를 정도로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다. 현재까지



<괘락의 정원>

1490-1500, 참나무에 유채, 220 x 389 cm, 프라도 미술관, 마드리드

전해지는 그의 그림 중에서도 확인된 것은 20여 점에 불과하고 그의 추종자들의 그림도 다수 섞여있어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이 숙제로 남아있다. 아무튼 그는 다른 르네상스 시대의 작가와 확연히 구분되는 독창적이고 신비로운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의 해괴 망창할 정도로 기괴하고 환상적인 작품은 현대인의 상상의 한계를 초과한다.

히에로니무스 보쉬의 작품들은 가톨릭 교회의 문맹의 신자들에게 가르침을 주려는 의도이며, 자연스럽게 시각적 설교 및 훈계를 품게 되었다. 특히 그의 이 작품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압도적인 지옥의 모습을 현실화 함으로서 무한한 공포심을 유발 시킨다. 천국과 지옥은 어느 종교에서나 나타나는 주제이기도 하다. 정통 가톨릭신앙에 뿌리박은 그가 이 주제에 매달린 것은 그의 특이한 재능에서도 기인하지만 그의 삶이 네델란드의 동화나 구전된 이야기의 풍성함도 한 몫을 한다. 교훈을 주기 위한 당시의 문화적 시대배경이 그의 독창성에 힘입어 전무후무한 지옥도가 완성된 것이다. 레판토 해전에서 이슬람 세력을 물리쳐 명성을 얻고 그의 이름을 딴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은 스페인 국왕 펠리페 2세가 그의 작품의 열렬한 팬이 된 것은 그의 내성적이고 폐쇄적인 성격과 보쉬의 독창적이면서도 기이한 화풍과도 딱 맞아 떨어졌을 것이라는 미술사가의 추측도 있다.

신학적 소재를 차용함은 물론 지금의 시선으로 봐도 전 우주적 배경에 외계인이 도래한 듯한 작품의 내용은 현대 호사가들을 열광하게 만든다. 지옥의 존재여부에 대해 의구심이 많은 현존(?) 신자들도 섬뜩하게 느낄 정도로 참(?)지옥을 연상시킨다. 내세의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500년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

이 작품을 면밀하게 살펴본 다음, 우리 신앙인들이 평소의 안이한(?) 자세를 고쳐 잡는다면 천국의 히에로니무스 보쉬도 흡족한 미소를 지으리라!

글/김응배 안드레아

부활
제 4 주일
2024년
04월 21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화-금 미사전 묵주기도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edisonkcc@gmail.com
근무시간: 화-금요일
(10:30AM~3:30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 여좌에 앉아계신 그리스도와 생명수의 강, 밤베르크 묵시록 >

< 이번 주 전례안내 >

제 1독서 사도행전 4,8-12
화답송 시편 시편 118(117),1과 8-9,21-23,26과28-29(© 22)

후렴.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제 2독서 요한 1서 3,1-2
복음 환호송 요한 10, 14 참조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복음 요한복음 10,11-18
성가 입당 55 봉헌 512, 221 성체 175, 183 파견 132

- 미사지향 (연미사)**
- 선집환(마리아) - 가족
 - 감명자(헬레나) - 가족
 - 백경옥(요셉) 박노임 홍갑분 - 가족
 - 윤동순(마리아) - 가족
 - 정혜자 - 이은숙(가브리엘라)
 - 박병준 - 김영필(안토니오) 가족
 - Jeannine Marie Jennings - 송진영(마리스텔라)

- 미사지향 (생미사)**
- 최승웅(미카엘) 부제님 - 박안나
 - 윤석로(이나시오) 부제님 가정 - 서인석(프란치스코)
 - 오현주(요한) 예비 부제님 - 박안나
 - 염은미(클라라) - 가족
 - 윤 날리 - 가족, 서현주(테레사)
 - 오애희(울리아나) - 가족
 - 김영필(안토니오) - 가족, 김순옥(울리아)
 - 임영진(테레사), 김민주(이스베르가) - 채미영(테레사)
 - 윤성재(헨리코) - 염세실리아
 - 손종철(안드레아) - 김순옥(울리아) 가족
 - 토레스(글라라) - 김영필(안토니오) 가족
 - 고병준 안가연 견진을 축하하며 - 이서형(요안나), 소나영(안나) 김민주(이스베르가)

- 이보연(요안나) - 이서형(요안나), 김순옥(울리아)
- 황선주(요세피나), 이소희(베로니카) - 성가대
- 조용신(스테파노) - 오경숙(세실리아)
- 오경숙(세실리아) 가정 - 서현주(테레사)
- 김삼식(베드로) - 가족, 성낙순(미카엘라), 김순옥(울리아)
- 한지혜(크리스티나) - 서현주(테레사), 김태경(카나리나) 김영필(안토니오), 오경숙(세실리아)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4/14 주일 헌금 (141명).....\$1,166
 - 감사헌금 (오경숙).....\$100
 - 교무금 합계.....\$1,750
 - 양영길(3-4) 서정근(3-4) 김순옥(1-5) 오애희(3-5) 최율리(3-4)

새로 오신 분, 방문해 주신분, 오랜만에 오신 교우들 환영합니다!

-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하건철(안토니오) 오용덕(헨리코) 오애희(울리아나)
 - 염은미(클라라) 하준석(마태오) 곽 울리안나 김삼식(베드로)

- 모든 친교 후 청소 철저**
1. 모든 쓰레기통은 비우고 새 비닐백으로 씌워주세요.
 2. 재활용통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3. 재활용 통에는 병, 캔, 깨끗한 종이 만 넣어주세요.
 4. 바닥 청소 깨끗이 해 주세요
 5. 마지막 퇴소자는 소등 및 문 단속 확인 바랍니다.

성당 창문 열으셨다면 이용후 꼭 닫고 잠가주시고, 히터와 에어컨 이용후에는 항상 원래의 스위치로 돌려놓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빵과 포도주 봉헌**
- 4/21 이광재 소나영 • 4/28 나채국 김민주

- 친교 봉사 일정**
- 4/21 렛저스 • 5/19 노스브런스윅 • 6/16 노스에디슨+메타천

2024 Bishop's Annual Appeal
<Stay with us, Lord : Renew our Hearts and Send Us on Mission>

- 메타천 교구내 사목, 교육, 자선활동을 지원하는 2024 Bishop's Annual Appeal에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24년 본당 목표 금액은 \$37,000입니다. 목표금액 달성시 초과금의 50%는 본당으로 귀속됩니다
- 4/12 까지 약정된 금액은\$20,902.50 (목표금액의 71.70%) 입니다.

부활 포장마차 행사를 통해 \$3,744의 매출과 \$2,186의 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테네시농장 농산물 매운고추가루(30불)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주문은 4월 28일로 마감합니다.

기획분과 회의: 4월 21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2024 에디슨 성당 탁구대회

- 일시/장소: 4월21일 미사후 친교실, 참가비: \$5
- 여자부/남자부 우승자들에게 푸짐한 상품과 음료수 준비되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반석회 모임: 4월 27일 토요일 12시 친교실

썸머셋구역 모임(구역장, 조현실 테오도라): 4월 28일 미사후 친교실

전례분과 월례회의

- 일시 : 4월 28일(주일) 미사후 친교실
- 문의 : 단체장(독서단, 제대회, 성가단, 복사단)

오현주 요한 부제 서품미사, 리셉션 및 첫 감사미사 안내

- 서품미사 장소: St. Francis of Assisi Metuchen
- 일시: 5월 3일, 금요일, 4 pm
- 리셉션 시간 및 장소: Sakura(1345 US-1, N Brunswick 08902) 5월 3일, 금요일, 6:30 pm
- [참석하실 분들은 서경희 (피아, 732-668-5756) 혹은 채 테레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본당 첫 감사미사: 5월 5일, 11:30am 미사후에 축하연이 이어지겠습니다.

National Eucharistic Revival(성체 기도문)은 각자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후보 제작을 위해 미사 지향 신청 및 후보 공지 사항을 매주 수요일로 마감합니다.

4월부터 사무실 근무 시간이 화- 금, 오전 10:30 ~ 오후 3:30으로 변경됩니다

제1독서: 사도행전 4,8-12

그 무렵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원로 여러분,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한 사실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문제로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온전한 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요한1서 3,1-2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0,11-18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샅꾼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 가고 양 떼를 흩어 버린다. 그는 샅꾼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 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현주 요한 종신부제 서품식을 위한 기도

- 영원한 사제이시며 착한 목자이신 주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세상에 파견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 당신의 거룩한 부름을 받고, 당신께 온전히 응답하기 위해 준비하는 종신부제 수품자 오현주 요한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을 향한 그의 삶을 지켜주소서.
 -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함께 계시니, 그가 신앙의 신비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복음과 교회의 전통에 따라 그 신앙을 말과 행동으로 전파하게 하소서.
 - 주님을 본받아, 가난한 이들과 고통받는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억압받는 이들에게는 해방을 선포하며, 하느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소서.
 - ◎ 주님, 간절히 청하오니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는 종신부제 수품자 오현주 요한을 지켜주시어,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한 삶으로 백성들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천국에서 주님의 식탁에 함께 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사(부)제들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님,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님,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부활 삼중 기도

-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알렐루야.
-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 기도합니다.
-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